

Issue Commen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월 22일



Analyst 김선아 seon.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hanafn.com

제약/바이오 이슈 브리프

위기 속에 튼튼한 사과 나무 고르기

상승의 신호탄이 아닌 하락의 주범이 된 대장주

‘25년 3월부터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해 오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와중에,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하락하였다. keytruda 로열티올 쇼크로 펀더멘털이 손상되긴 하였으나, JPMHC에서 언급한 대로 약속을 이행했고 GSK라는 신규 파트너사를 유입하여 유의미한 행보를 보였음에도 하락 수준은 과도한 듯 하다. 무엇보다 코스닥 바이오텍은 물론이고, 애먼 코스피 제약사까지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반도체, 로봇, 자동차 등으로 수급이 흐르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제약/바이오의 선행 지표로서 영향력이 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과 나스닥 바이오텍의 주가 회복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스닥 바이오텍은 국내 바이오텍의 시총 valuation Peer로써 흔히 인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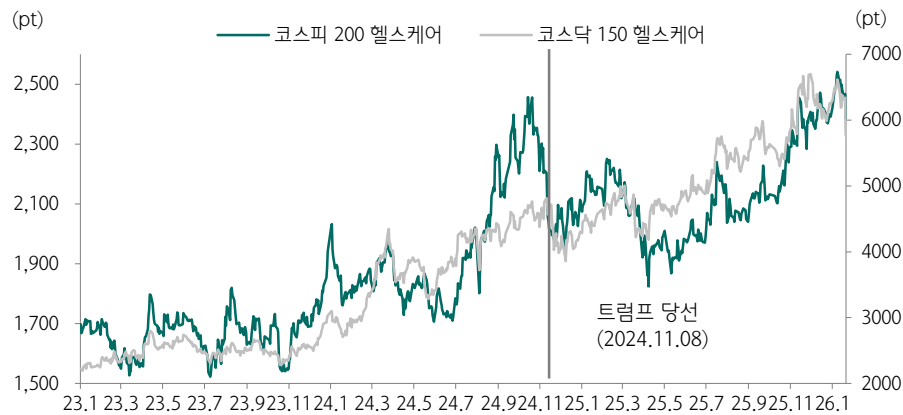
JPMHC에서 찾는 아이디어

JPMHC에서 가장 눈에 띈 기업은 Lilly이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Lecanemab과 비교해 시장성/안전성/편의성 면에서 열위한 상태인 Donanemab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점과, 모달리티에서 RLT, Gene Medicine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Roche의 Trontinemab의 성과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Donanemab을 계속 활용하고자 한다면 BBB shuttle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Gene Medicine이라는 큰 카테고리 밖으로 siRNA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5년12월17일자 발간한 Biweekly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Wave Life Science의 siRNA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로 siRNA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한 상황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로부터 관심을 둘 만한 기업으로,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올릭스가 있다. 한편 Z-alpha라는 RLT 기업이 릴리 벤처스의 소개로 Lilly가 운영하는 “Lilly Gateway Labs”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디앤디파마텍이 이 기업에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예시로서,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21 주가 하락 종목 중 관심 가져 볼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인 1/20일 기준 3개월 전 수익률(상위)과 비교해 어제 하루 동안 급락한 (수익율 하위) 기업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기업은,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디앤디파마텍, 오름테라퓨틱, 프로티나, 메드팩토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았으나 크게 하락하여, 수익율 하위를 기록한 기업은 리가켄바이오가 있고, 12월에 상장하여 3개월 전 수익률 순위에는 해당 되지 않은 알지노믹스, 에임드바이오, 인투셀도 어제 하루사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기업들 모두 ‘26년에 기술이전, 주요 임상 발표 등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봄 직 하다. 아울러 한미약품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으나, 우수한 실적과 2/3일 MSD 이벤트 등을 남겨 두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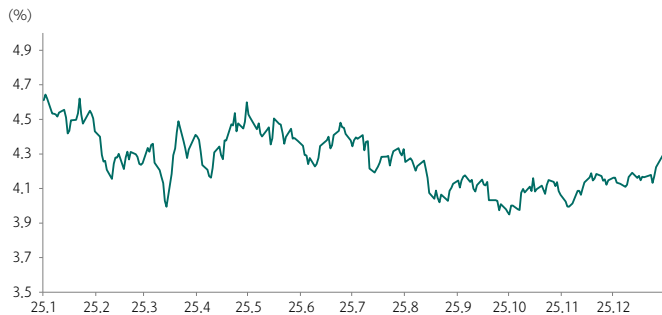
도표 1.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주: 1/21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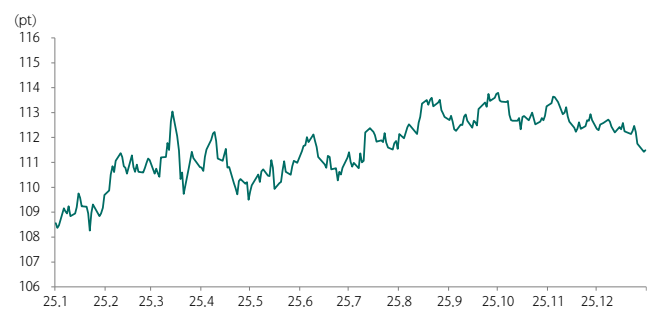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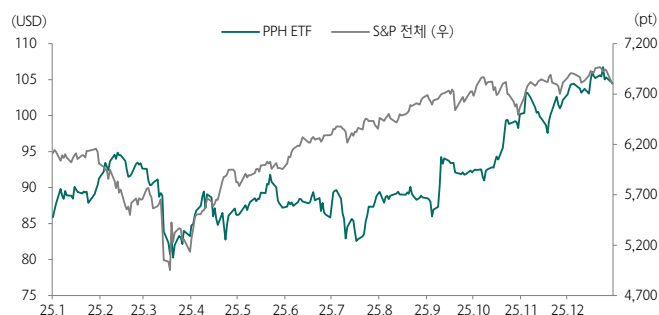
주: 1/20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1/20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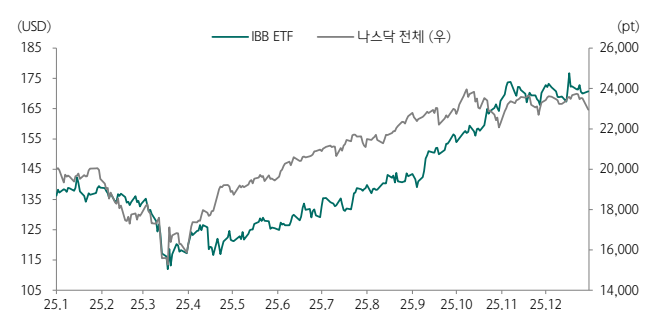


주: 1/20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0.73%), Novartis(10.03%), MSD(8.90%), Novo Nordisk(6.44%), Pfizer(4.62%), BMS(4.54%), Abbvie(4.38%), CSK(4.37%), McKesson(4.37%), AstraZeneca(4.3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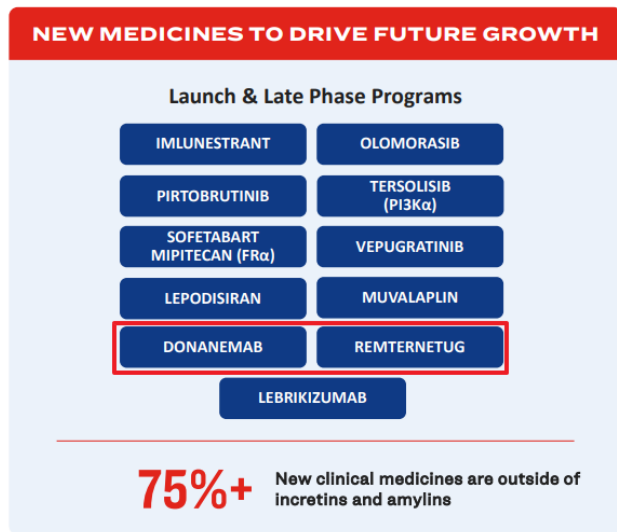


주: 1/20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8.63%), Gilead(8.05%), Amgen(7.82%), Regeneron(6.89%), Alnylam(4.55%), Insmed(3.23%), argenx SE(3.00%), Natera(2.65%), Biogen(2.27%), BeOne Medicines(1.9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Lilly가 생각하는 미래 성장을 이끌 파이프라인



주: 붉은 박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료: JPMHC 2026 Lilly presentation, 하나증권

도표 7. Lilly가 타겟하는 신규 플랫폼

NEW PLATFORMS TO ADDRESS UNMET NEED
 Antibody Drug Conjugates

 Radioligand Therapies

 siRNA

 Genetic Medicine

자료: JPMHC 2026 Lilly presentation, 하나증권

도표 8.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 수익률

3개월전 수익률 (상위)	%	1일전 수익률 (하위)	%
오름테라퓨틱	214.98	알테오젠	-22.35
애플론	188.95	큐라클	-15.85
에이비엘바이오	129.71	삼양바이오팜	-15.75
인벤티지랩	117.78	올릭스	-14.92
디앤디파마텍	107.07	펩트론	-13.21
파로스아이바이오	89.49	리가캠바이오	-12.12
씨어스테크놀로지	88.69	에이비엘바이오	-11.89
일동제약	84.03	와이바이오로직스	-11.78
이문온시아	77.97	알지노믹스	-11.53
프로티나	69.03	삼익제약	-11.0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67.43	지투지바이오	-11.03
코로네티슈진	64.89	파맵신	-10.86
강스템바이오텍	64.53	디앤디파마텍	-10.70
JW신약	63.32	큐리언트	-10.42
나노엔텍	62.65	인투셀	-9.74
큐라클	60.1	로킵헬스케어	-9.55
와이바이오로직스	59.55	오름테라퓨틱	-9.42
안트로젠	58.71	프로티나	-9.10
올릭스	57.79	메드팩토	-8.97
메드팩토	56.18	쿼드메디슨	-8.51
제테마	52.49	에임드바이오	-8.44
코오롱생명과학	51.64	티움바이오	-8.33
지투지바이오	51.1	한올바이오파마	-8.08
에이프릴바이오	50.39	코아스템켐온	-7.88
에이비온	44.23	넥스트바이오메디컬	-7.86

주: 회색음영은 좌우 상위/하위 랭크에 모두 올라온 기업, 하늘색 음영은 좌측 3개월 전 수익률 랭크에 올라오진 않았으나 '26년 관심 가질만한 기업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1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